

2010년 11월 23일(화)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산업정책연구원 지속경영본부 오범택(02-360-0762, btoh@ips.or.kr)

지식경제부, 산업정책연구원 '10년도 주요기업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발표

국내 주요기업들, 지속가능경영 적극 대응 필요

- √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제도와 조직을 갖추는 등 체계적인 추진 확대
- √ 1차 협력업체 중심의 상생협력: 2, 3차 협력업체로 확대해야
- √ 기업의 사업전략과 연계된 전략적 사회공헌활동 필요
- √ ISO 26000 등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트렌드 대응을 위한 지표 강화로 소폭의 점수 하락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와 산업정책연구원(원장: 이윤철)은 국내 기업들의 지속가능경영 도입수준을 진단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2009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KoBEX SM)¹⁾」를 실시하였으며 세부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 * 동 조사는 41개 공기업(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물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기업), 31개 민간기업('08년 매출액 및 시가총액 상위 200대 그룹)이 설문 형식으로 실시
- 성과보고기간: 2009. 1. 1 ~ 2009. 12. 31.
- 조사방법: 정량적 평가(21%)와 기업들의 응답 내용에 대한 정성적 평가(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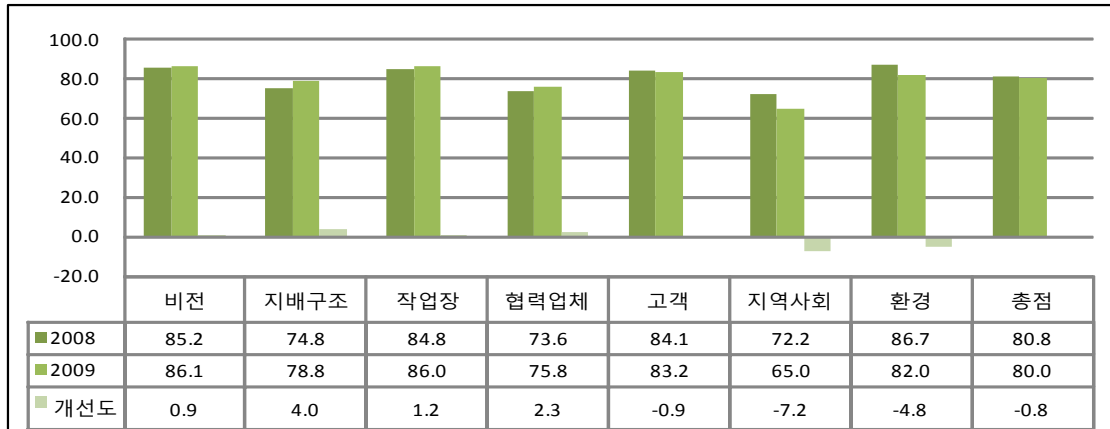
2010년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80.0점으로 나타났으며, 지표 개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다.²⁾

1) * KoBEX SM(Korean Business Ethics Index-Sustainability Management): KoBEX SM은 2003년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 개발한 국내 기업의 윤리경영 평가 지표(KoBEX)를 지속가능경영 평가로 확대 및 개정한 지표

** 조사 연혁 : KoBEX 실태조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이루어져 왔으며, 2008년부터 KoBEX SM으로 개정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2) 전년도 조사인 2008년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의 전체평균은 80.8점(100점 만점) 임

<표> '08-'09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영역별 점수 및 총점(100점 만점)



영역별 살펴보면 지속가능경영비전, 작업장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지역사회 영역은 다소 미흡하게 나타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지배구조와 협력업체 영역은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환경 영역은 다소 하락하였다.(위의 표 참조)

특히, 지배구조 영역의 경우 리스크 관리에 대한 조사 및 교육, 관련 조직 강화 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 부분의 점수가 높아졌으며, 협력업체 또한 상생협력 부문이 강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상생협력의 강화는 대부분 1차 협력업체에 그친 것으로, 향후 2, 3차 등 전체 협력업체를 포괄하는 상생협력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상생협력 범위뿐만 아니라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 정보공유 등 상생협력 내용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 영역과 관련하여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이 미진하였으며, 향후 봉사에만 편중된 사회공헌이 아니라 기업의 사업전략과 연계된 사회공헌전략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환경경영 영역의 경우 기업군간 차이가 뚜렷이 나타났다. 제조업 기업군과 공기업(고)기업군의 경우 환경영향에 잘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비제조업군과 공기업(저)기업군의 경우 환경목표 설정과 함께 온실가스를 포함한 자원사용량 집계 등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³⁾

한편, 평균총점이 90점 이상은 우수기업군은 총 19개 기업으로 나타났다.

<표> 2010 조사결과 우수기업군(AAA 등급)

우수 기업군(AAA등급, 가나다순)

KB 국민은행,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삼성전자, 서울메트로, 유한킴벌리, 인천국제공항공사, 포스코특수강,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하이닉스반도체

이번 2010 KoBEX SM 조사지표는 ISO 26000⁴⁾ 등 최근 지속가능경영의 주요이슈를 반영하기 위해 협력회사와의 상생협력과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지원 등에 관한 일부 지표를 개정하였다.

향후 금융 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정확히 진단하기 위한 금융산업 부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올해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내년 조사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지식경제부와 산업정책연구원이 개발한 지속가능경영지표(KoBEX SM)는 지난 7년 동안 국내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및 지속가능경영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며, 지속가능경영대상(지식경제부)의 기초심사기준, 일부 민간기업의 지속경영진단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3) 공기업(고)는 발전, 가스, 항공, 수도 사업, 건설 등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지칭하며, 공기업(저)는 교육, 일반 행정, 금융 및 서비스, 연구 등 비교적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기업을 나타냄

4) 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

설문에 응답한 기업들에게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으며, 취약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와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한 기업들에 대해선 시계열 변화에 대한 자료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지식경제부는 “나눔과 함께 성장하는 것이 지속가능경영의 핵심인 만큼 상생협력과 이해관계자를 고려하는 경영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히며, 이를 위해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신철호 교수(성신여대 경영학과, 책임연구원)는 “국내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 수준은 안정적인 수준에 이르렀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성숙한 지속가능경영 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상생협력과 전략적 사회공헌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1]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1부

[붙임1]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2010. 11

- 목 차 -

I. 조사 개요	2
II. 2010년도 KoBEX SM 조사 결과	4
1. 전체 조사 결과	4
2. 영역별 조사 결과 및 동향	6
3. 업종별 조사 결과	10
4. 등급 및 마크	11

I. 조사 개요

□ 연구 목적 및 배경

-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 조사」는 지식경제부, (사)산업정책연구원이 국내 주요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천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속가능경영 인덱스를 작성 및 보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10년도 조사('09 KoBEX SM)는 지속가능경영성과 평가에 대한 기본 틀을 제공하고 지속가능경영 체제를 지속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03~'07년도까지 시행된 주요기업의 윤리경영 실태조사와 '08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 조사에 이은 7차년도 조사임

□ 지속가능경영 평가지수(KoBEX SM)

[지표 개요]

- 본 연구의 지속가능경영 지표(KoBEX SM: Korean Business Ethics Index-Sustainability Management)는 2003년부터 실시해온 윤리경영 지표 (KoBEX)를 지속가능경영 평가로 확대 및 개정한 지표
- '10년 KoBEX SM지표는 전년도 지표개정에 이어 영역별 약 27%의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지표개정의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한 소비생활과 상생협력 등 지속가능경영의 최근 경향 및 내용을 반영하고 있음

[영역별 평가 내용]

- 지속가능경영 비전 : 경영진의 지속가능경영의지, 전략, 이해관계자 참여
- 지배구조 : 이사회 투명성 및 독립성, 리스크 관리 등
- 작업장 : 노사관계, 안전 보건 및 복지, 윤리경영제도
- 협력업체 : 거래 투명성, 상생협력
- 고객 : 고객관리, 고객 보호 및 안전,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지원
- 지역사회 :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실천정도
- 환경경영 : 환경 정책 및 환경 영향 최소화를 위한 활동

□ 조사 대상 및 과정

[조사 대상]

- 공기업 :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지방공기업 산하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¹⁾의 총 41개 기관이 설문응답에 참여
- 민간기업 : 2009년 매출액 기준 상위 200대 기업, 시가총액 기준 200대 기업 가운데 총 31개 기업이 설문응답에 참여²⁾

[진행 과정 및 순서]



1) 주무부처의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 위탁집행), 기타 공공기관을 가리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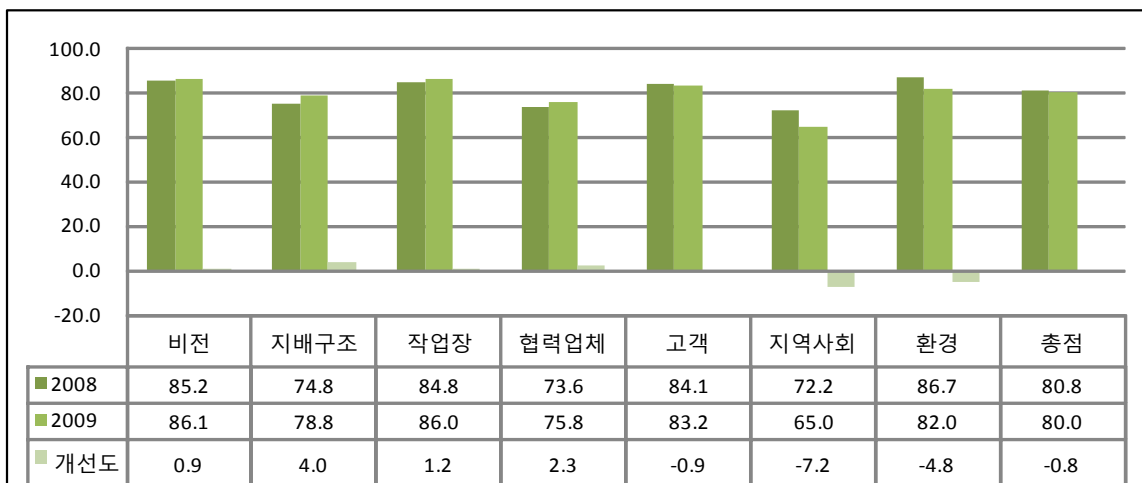
2) 개별적으로 참여를 원하는 기업 및 단체도 설문에 참여하였음

II. 2010년도 KoBEX SM 조사 결과

1 전체 조사 결과

- 2010년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실태조사 결과 전체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80.0점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 지속가능경영 비전과 작업장 영역이 다른 영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표1)
- 주요기업의 이해관계자 참여 활동의 경우 응답 기업의 각각 92.3%와 86.2%가 이해관계자 참여를 위한 제도와 이해관계자를 구체적으로 정의 및 파악하는 제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속가능경영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원을 갖춘 기업 또한 83.1%로 나타나 국내 주요기업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이 다양해짐은 물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1. 영역별 평가 결과 동향(2008-2009)]



- 당해 연도 조사의 지표 개정률(27%)을 고려하면, 2010년 평가 결과는 전년 결과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표1)
- 2개년을 비교하면 지속가능경영 비전, 지배구조, 작업장, 협력업체 영역 수준은 상승한 반면, 지역사회와 환경경영 영역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필요함(2. 평가영역별 조사 결과 및 동향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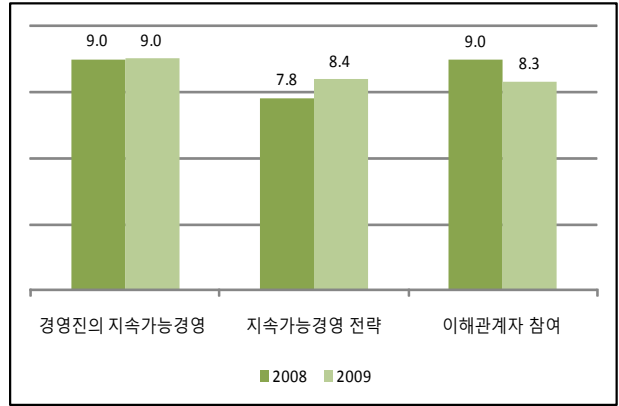
- 지배구조 부분의 경우 리스크 관리 영역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보였는데, 90%이상의 기업들이 리스크 조사와 관련 교육 및 분석 시행함은 물론 리스크 관리 부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2- 2)지배구조 참조)
-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사회 영역의 경우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전략적 사회공헌전략 시행과 지역사회 개발에 간접적 도움을 주는 기업 활동 수행 등이 특히 미흡하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에 대한 가치평가와 사회공헌 투자 규모 등도 낮게 평가되었음(2- 6)지역사회 참조)
- 환경경영 영역의 당해 점수는 지표개정 등의 이유로 소폭 하락하였으며, 업종에 따라 비제조업군과 공기업(저)군 기업들은 환경목표 설정 및 이에 대한 공개와 환경성과 집계 부문에서 낮은 수준을 나타내 이후 기후변화 대처 등에 대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2- 7)환경경영 참조)

2 평가 영역별 조사 결과 및 동향

1) 지속가능경영 비전

[표3. 지속가능경영비전 평가 결과 동향(08-09), 10점 만점]

- 지속가능경영 비전 영역의 경우 경영진의 지속경영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난 반면, 지속가능경영 목표를 설정 및 공개하거나 이에 대한 국제규범을 채택하는 기업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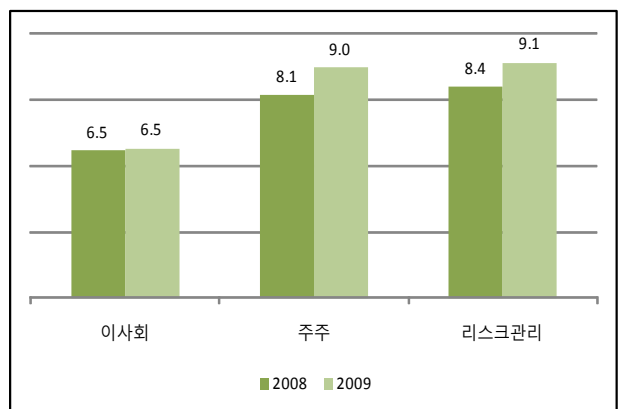


- 08년 KoBEX SM 결과와 비교하여 경영진의 지속가능경영 활동과 지속가능경영 전략에 대한 활동은 전년도에 비해 향상되었으며, 이해관계자 참여활동은 평가문항의 변경으로 인해 결과가 다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응답기업 중 92.3%가 이해관계자 참여 제도를 구축하는 등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함

2) 지배구조

[표4. 지배구조 평가 결과 동향(08-09), 10점 만점]

- 지배구조 영역의 경우 이사회 내·외부에 지속가능경영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이 전체 응답기업 중 80%이상을 차지했으며, 경제·사회·환경에 걸쳐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춘 기업 또한 90%이상을 차지하여 지배구조에 대한 지속가능경영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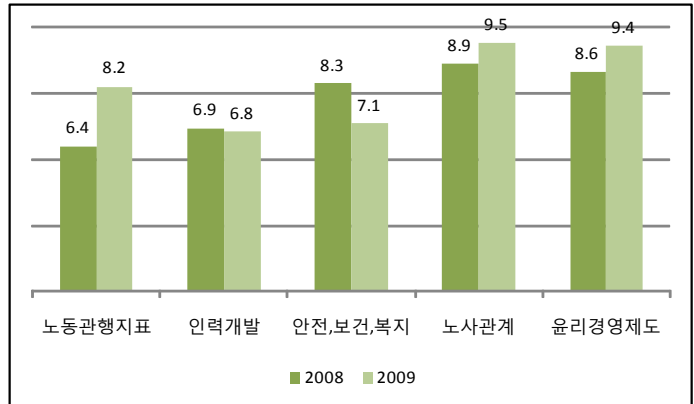
- 08년 KoBEX SM 결과와 비교하여 리스크 조사 및 분석, 관련 교육, 관리부서의 강화 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 영역의 질적 향상을 보인 반면, 이사회

부문만 작년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함

3) 작업장

[표5. 작업장 평가 결과 동향(08-09), 10점 만점]

- 작업장 영역의 경우 90%이상의 기업들이 노동관련 성과지표(차별금지, 남녀의 평등한 보상, 근로시간, 해고, 집회의 자유 등)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윤리경영에 대한 지원제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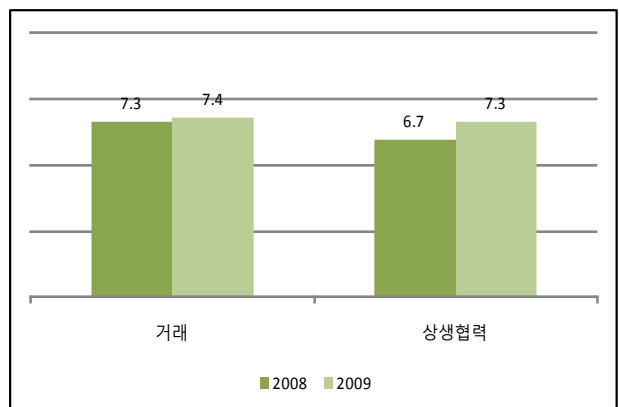


- 다만, 노·사간 합의에 의한 정기적 보건 및 안전노동관리위원회를 운영하는 기업은 6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작업장 영역의 지속가능경영 활동은 전체적으로 향상된 모습을 볼 수 있으나, 문항이 강화된 안전·보건·복지 부문의 활동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관련 데이터 수집 등 체계적 관리와 활동이 필요함

4) 협력업체

[표6. 협력업체 평가 결과 동향(08-09), 10점 만점]

- 협력업체 영역의 경우 협력업체의 지속가능경영활동을 지원하는 기업이 응답기업 중 8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원은 대부분 1차 협력업체 수준에 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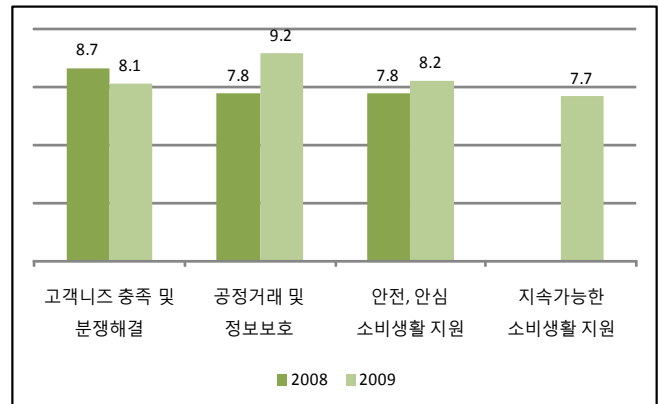
- 90%이상의 기업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40%의 기업만이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 정보공유 등 전범위에 걸쳐 상생협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에 비해 거래와 상생협력 세부 영역 모두 향상된 경향을 보이고 있음

5) 고객

[표7. 고객 평가 결과 동향(08-09), 10점 만점]

- 고객영역의 경우 응답기업의 90%이상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함은 물론 고객 고충처리 및 보상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객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 또한 80%이상으로, 고객 만족 및 소비생활 지원에 관한 기업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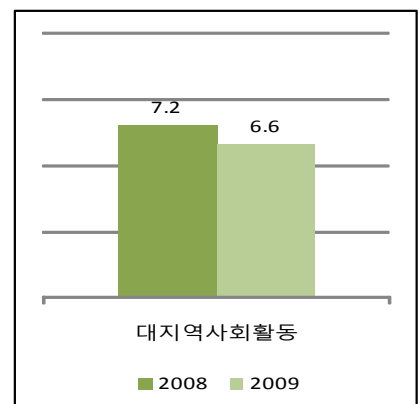


- 이에 비해 소비자의 지속가능한 소비생활을 지원하는 제도 및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업은 응답기업 중 60% 수준에 그쳤으며, 관련한 행사 등을 제공하는 기업 또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전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고객 고충처리 및 보상제도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사생활 및 정보보호와 건강·안전에 대한 제도는 강화된 것으로 조사됨
 - * 고객니즈 충족 및 분쟁해결(08, 고객관리), 공정거래 및 정보보호(08년, 고객보호 및 안전), 안전·안심 소비생활 지원(08년, 고객보호 및 안전)
 - **지속가능한 소비생활 지원은 2009년도 조사에 처음 도입

6) 지역사회

[표8. 지역사회 평가 결과 동향(08-09), 10점 만점]

- 지역사회 영역의 경우 대다수의 기업들이 지역사회 고용창출에서부터 전통문화지원, 교육지원 그리고 사회적 약자집단 보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지역사회의 요구(사항)를(을) 파악하는 기업이 90%에 이를 정도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은 미흡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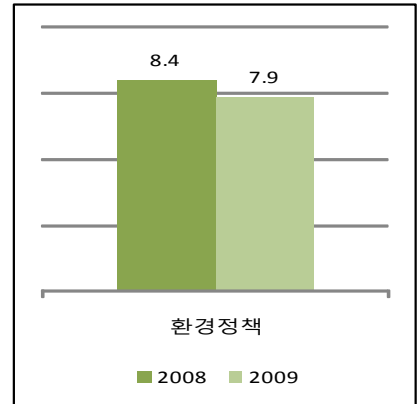


- 기업의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전략적 사회공헌의 경우 소수의 기업 (32%)만이 시행하고 있어 향후 해당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7) 환경경영

[표9. 환경경영 평가 결과 동향(08-09), 10점 만점]

- 환경경영 영역의 경우 환경정책을 제정하는 것과 함께 환경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기업이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를 공개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와 함께, 응답 기업 중 90%이상의 기업이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업의 정책 및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관리하는 기업은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됨
- 전년도 결과와 비교하여 해당 점수는 소폭 하락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비제조업과 공기업(저)군의 기업들은 환경목표 설정과 온실가스를 포함한 자원사용량 집계, 환경목표 설정 등 환경영향 대응에 다소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향후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8) 7개년 공통문항

- 지난 2003년 조사부터 조사해 온 공통 문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1) CEO가 지속가능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횟수가 연평균 26회에 이를 정도로 CEO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은 높아지고 있으나, 2) 지속가능경영 관련 소위원회를 설치한 기업 수는 다소 줄어들었으며, 3) 기업 내 윤리경영 교육 시간 또한 소폭 하락하고 있음
- 그리고 주요기업들의 4) 협력업체에 대한 지속가능경영 지원활동은 증가하고 있으며, 5) 고객 만족도 개선을 위한 활동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6) 환경 정책 및 공시에 대한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CEO의 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강조 : 29%('03)→72%('08)→100%('09)
- * 지속가능경영 관련 소위원회 설치 기업 : 38.5%('03)→85%('08)→83.1%('09)
- * 종업원 1인당 윤리경영 평균 교육 시간 : 3시간('03)→12시간('08)→10.7시간('09)
- * 협력업체 지속가능경영 지원 활동 : 54%('03)→76%('08)→83.1%('09)

- * 고객 만족도 조사 실시 기업 : 33%('03)→92%('08)→**95.4%('09)**
- * 환경 정책 및 공시 기업 : 34%('03)→79%('08)→**81.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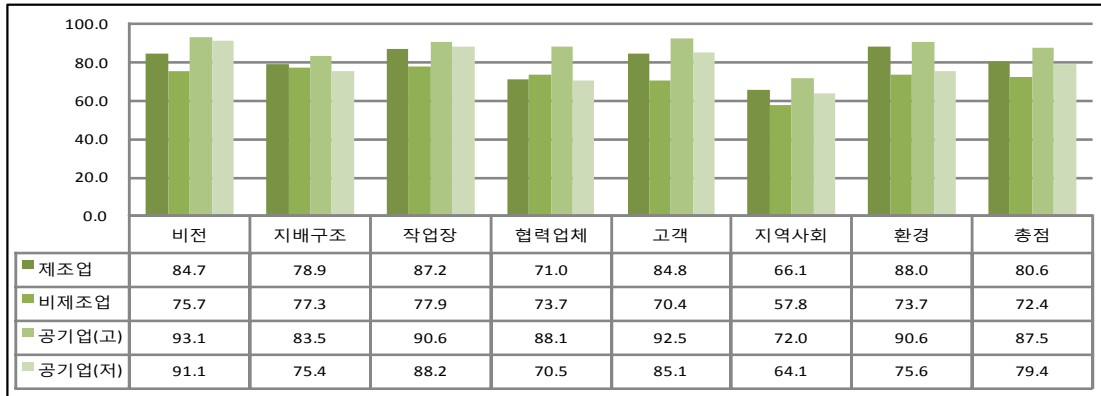
3 업종별 조사 결과³⁾

- 제조업은 **환경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비제조업은 **작업장**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 제조업 응답 기업의 경우 환경정책 제정과 이에 대한 목표설정 및 이를 공개하는 활동이 타 영역의 기업에 비해 활발하며, 특히 각종 배출량을 집계함에 있어 온실가스, 에너지, 원자재, 수자원, 폐기물 등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수치를 체계적으로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비제조업 응답 기업의 경우 노동관행 지표 관리, 인력개발 제도 운영 및 윤리경영 제도 운영 등에서 타 업종보다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특히 가족 친화적인 환경조성을 위해 자녀출산·양육·교육 지원, 부양가족 지원과 같은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고)와 공기업(저)⁴⁾ 모두 **지속가능경영 비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남
 - * 공기업(고) 응답 기업의 경우 다수의 기업들이 유엔 글로벌컴팩트 등 지속가능경영 관련 국제규범을 이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 공기업(저) 응답 기업의 경우 타 업종에 비해 지속가능경영 추진을 위한 명문화된 비전 및 전략 제시가 두드러지며, 특히 응답기업 전체가 지속가능성보고서 및 기타 공시자료를 통해 지속가능경영 관련 정보를 공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10. 업종별 결과]

3)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조사에 따른 업종별, 문항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평가가 이루어짐

4) 공기업의 경우 환경영향에 따라 공기업(고), 공기업(저)로 분류함. 공기업(저)는 비교적 환경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행정, 금융 및 서비스 사업 기관을 가리키며, 공기업(고)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발전, 전기, 가스 및 수도 사업 기관을 가리킴



4 등급 및 마크

□ KoBEX SM 등급

[등급 기준]

○ 등급은 평가 총점을 기준으로 하며, 절대값으로 부여함

등급	총점 기준
AAA	90.0점 이상~100점
AA	80.0점 이상~90.0점 미만
A	70.0점 이상~80.0점 미만
BB	60.0점 이상~70.0점 미만
B	60.0점 미만

□ KoBEX SM 마크

[참여기업 마크]

○ 참여기업 모두에게 참여기업 마크를 제작하여 발송, 홍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함



[KoBEX SM 우수기업 마크]



[KoBEX SM 참여기업 마크]

-끝-